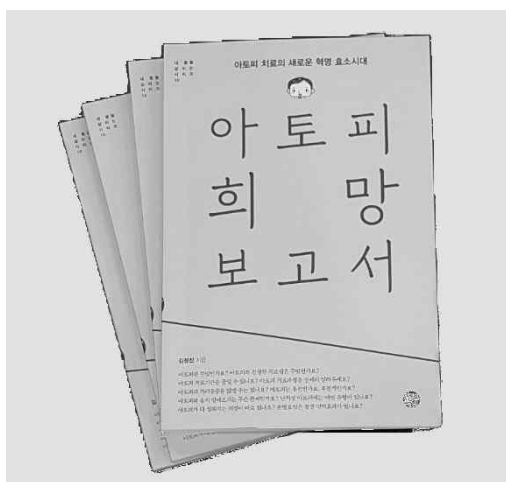


Food 북 칼럼

‘아토피 희망 보고서’를 읽고

박 성 향

(주)콤비메드



도서명: 아토피 희망 보고서

지은이: 김정진

출판사: 씽크스마트

아토피의 면역학적인 새로운 해석과 해법을 제시한 책(‘아토피 희망 보고서’)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김정진 한의학 박사로서 아토피 임상 20년 동안 1만여 명의 아토피 환자를 치료하면서 아토피 해석과 치료 콘셉트를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아토피 해석에 있어서 기존 표준치료법에서는 면역과잉으로 해석하고 면역억제제(스테로이드 계열)를 처방하고 있다. 김정진 박사는 아토피를 피부면역 약화로 인하여 피부에 알레르기 면역이 보상적으로 유도가 되면서 밤이 되면(잠자기 전) 가려움이 심해지는 질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아토피는 피부면역의 결함이 주원인인 면역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토피 치료의 핵심은 피부면역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피부면역에 중요한 요소는 인체와 공존하며 살고 있는 미생물, 즉 정상세균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즈음 뜨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콘셉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기존 아토피 치료법은 면역을 억제(소염제, 스테로이드)하고 세균을 억제(항생제)하는 방법에 반해서 ‘아토피

희망 보고서’에서는 피부면역을 회복(면역조절)하고 미생물의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자연요법의 근간을 닮아있다는 느낌이다.

‘아토피 희망 보고서’의 1편에는 아토피의 해석과 치료법의 콘셉트, 그리고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아토피의 조건 등 궁금증 10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2편에서는 인간과 공존하며 살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의 중요성, 그리고 아토피의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다. 3편에서는 아토피가 면역질환이며 면역학적 해석에 대한 설명과 항생제 등 약물남용을 경고하며 음식과 자연면역 취득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4편에서는 아토피의 근본적 해법 3가지를 제시하고 시대에 따른 피부질환의 변천사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럴듯하다. 5편은 19명의 임상케이스를 소개하며 얼마나 아토피 치료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환인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부록에는 아토피 논문 여러 편이 소개되어 아토피가 면역질환이며 그 해법에 대한 백데이터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김정진 박사는 아토피면역연구소를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도라지발효효소와 면역유산균을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에서 도라지발효물의 아토피 면역 효과에 대한 SCI 논문도 소개되고 있다.

‘아토피 희망 보고서’는 단순히 아토피 관련 서적이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질병관에 대한 계몽서라고 말하고 싶다. 과연 약이 질병을 낮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면역과 미생물이 질병을 조절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병관에 대하여 돋보기 역할을 하는 내용이 설득력 있게 담겨져 있다. 자연면역 취득과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몸살과 발열의 의미, 고약이 유행했던 중기시대와 아토피와 스테로이드 시대 등 의료문화와 시대에 따른 질병의 변천과정을 그려내며 질병에 대한 면역학적인 설명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길 수 있다.

시대가 낳은 사생아적인 아토피라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해법의 설명, 자연면역과 미생물 그리고 효소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읽으며 바람직한 질병인식관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